

문화

# ‘순정소년’ K-Pop으로 청소년 포교 나서고 싶어요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자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을 창단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방송사 연말 시상식장에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의 꿈 1순위가 연예인이라는데 만약 연예인이 되려는 청소년들이 저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일부러 교회에 가려 하지 않을까 정말 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불자 아이들을 키워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싶다는 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44)가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을 창단한 이유다. 현재 15명의 멤버로 구성된 순정소년은 올 하반기 정규 앨범을 발매 공중파 데뷔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순정소년이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청소년 중에 한 반에 불자가 5명이 될까말까 한다고 해요. 그나마도 친구들에게 낯은 종교, 구식 종교 왜 믿는다는 편견을 듣게 되어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까지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데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 답답했죠. 그래서 불자 아이들을 통해 불교를 알리고 젊은 불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일을 세웠습니다.”

순정소년은 얼마전 박 대표가 작사 작곡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싱글 앨범 ‘모두 함께’를 내놓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순정소년의 공식적인 데뷔 전에 싱글 앨범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멤버들과 평평함을 찾아가 봉사도 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지난 5월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의 추모 공연 무대에서 ‘모두 함께’를 불러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모두를 위

**젊은 불교 만들고 싶다는 발원으로 아이돌 그룹 창단**

**8월, 상설 무대서 찬불가 공연도**

로하기 위한 곡인만큼 이 앨범의 음원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전액 기부할 생각입니다.”

매일 조계사에 들려 절 기도를 한다는 박 대표. 20대에 가수의 꿈을 꾸다가 5억 원을 사기 당하고 부유했던 집안의 몰락으로 방황했던 그는 상경해 지인의 도움으로 신사동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고향 부

산에서 100평짜리 집에 살았지만 서울에서는 고작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며 하루에 12시간씩 떡볶이를 뒤집으며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러던 중 평화불사 소식을 듣고 낙산사를 방문해 천 배의 절을 올렸고 그 이후 자주 낙산사와 흥련암을 오가며 천배 삼천배 등의 기도를 해나갔다. 또한 서울로 돌아와서는 매일 절 기도를 했고 틈이 날 때면 언제 어디서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했다.

“명동 한 복판에서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하고 쳐다볼 정도였죠. 이런 기도의 가피였는지 집안의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었고 분식집 규모도 키울 수 있었죠. 급기야는 제가 소원하던 명동에도 진출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케이팝 공연을 하는 한정식집을 오픈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 꽤 많은 수익이 나고 그 자금으로 이렇게 기획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올 하반기 순정소년의 정식 데뷔를 앞둔 박 대표의 행보는 분주하다. 15명의 멤버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8월 일본 진출과 국내의 상설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팝 상설공연에서는 찬불가도 한 두곡 정도 부른다고 하니 불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좌석의 20%는 불자 청소년들과 소외이웃들이 무료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불교를 알리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매진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만월 같은 그 모습 친히 뵈고 싶어라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㉗ 낙산사 ㉘



낙산사의 신앙적 중심공간인 원통보전과 칠층석탑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

금강산과 설악산의 절경을 곁에 두고 일망무제의 푸른 동해에 접해 있는 낙산사(洛山寺)는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중심 도량이다. 신라 때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기도하여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절을 창건했고 원효대사도 이곳에 와서 관음보살을 친견했으며 범일국사 또한 정취보살을 친견하여 절을 더욱 확장 했다고 전한다. 낙산사의 이름 역시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락가산에서 온 적이다.

승경(勝景)으로서의 낙산사를 말할 때는 일출과 월출을 감상하는 풍류를 빼 놓을 수 없다. 낙락장승으로 둘러싸인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사랑한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이시(李植 1584~1647)이 “안건의 수목화와 임역령의 시, 천년 가람은 두 사람의 시화로 기이해 졌네”라고 표현한 것처럼 낙산사는 신앙의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얻어온 것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동국이상국집> 제25권에 낙산사 관음보살상의 복장(腹藏)을 보수한 데 따른 글을 남기고 있다. 이 글에서 낙산사의 풍경과 관음보살상에 대한 고려시대 사람들의 신앙심을 읽을 수 있다.

“동해 가 낙산 위에 한 승지(勝地)가 있는데 청정하여 티끌 한 점 없으니, 수월(水月) 물속에 비친 달)의 청수한 실상이 이곳에 의탁하였다. 아, 저 완악한 오랑캐는 무지막심하다. 그들이 횡행하며 노략질할 적에 심지어 절의 불상까지도 훼손을 입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리 대성(大聖)의 존구(尊軀)도 또한 그러하여 비록 형체는 겨우 보존되었으나 복중(腹中)의 진장(珍藏)은 모두 수탈당하거나 흩어져서 텅 비었다.

지인(至人)의 경계는 본래 영허(盈虛)·소식(消息)의 이치가 없는데, 금강(金剛)의 진체(眞體)에 어찌 훼손이 있겠는가? 그러나 범부(凡夫)의 보는 바에 있어서는 어찌 상심이 되지 않으랴? 하물며 제자(弟子)로서는 경양하는 마음이 전부터 간절하였는데, 이제 복중의 진장이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남보다 배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동시에 용감히 보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절원의 소장된 것을 참작하여 삼가 심원경(心圓鏡) 2개와 오향(五香)·오약(五藥)·색사(色絲)·금낭(錦囊)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어 복중을 채워서 완전히 복구하여 예전 것과 손색이 없게 하였으니, 바라던 바에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이 같은 설명에 이어 이규보는 복장을 새로 조성한 공덕을 찬(贊)하는 시를 붙였다.

구경불취(究竟不取)  
금강진신(金剛眞身)  
외지상설(外之像設)  
성취유인(成취由人)  
인비일류(人非一類)  
혹경혹도(或敬或侮)  
피모이잔(彼侮而殘)  
아경이보(我敬而補)  
여월사결(如月斯缺)  
미기부전(未幾復全)  
범백사여(凡百士女)  
일심구처(一心歸處)

마침내 험어버리지 못할 것은 금강의 진신이다. 그밖의 상설이야 이루고 하는 일 사람이 하거늘 사람이 똑같지 않을진대 공경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저들은 업신여겨 손상하고 나는 공경하여 보수하네. 저 이지러진 달과 같이 얼마안 가서 다시 등글었다. 모든 사녀(士女)들은 일심으로 돌아가 공경하라.

형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은 진신이 아니다. 그저 형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보고 진신을 염원하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형상 또한 형상 이상의 의미를 얻는다. 이규보는 이 기문을 최충현의 아들 최우를 대신해 지은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당시 상당한 권력자였던 최우가 불사에 관여했다는 뜻일 게다. 그렇다면 오랑캐는 관음보살상을 허물고 ‘나’는 공경하여 보수한다는 구절의 ‘나’는 최우일 가능성이 크다.

꽃을 물고 온 파랑새  
고려 때의 문신 유자량(庾資諫, 1150~

1229)이 지은 시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4권에 ‘낙산사’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전한다. 유자량은 독실한 불자였다. 그가 범마사로 양양에 와서 낙산사 관음굴 앞에서 분향하고 배례를 하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꽃을 물고 날아와 깃 위에 떨어뜨리자 크게 감격하여 이 시를 지었다고 전한다. 원효대사도 낙산사에서 파랑새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파랑새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이다.

해에고절처(海崖高絶處)  
중유낙가봉(中有洛迦峰)  
대성주무주(大聖住無住)  
보문봉불봉(普門封不封)  
명주비아유(明珠非我欲)  
그밖의 상설이야  
단원홍파사(但願洪波上)  
친침만월객(親臨滿月客)

바닷가 벼랑 높은 곳에 그가운데 낙가봉이 있네. 대성은 머물러도 머무는 것이 아니요 보문은 봉해도 봉한 것이 아니네. 명주는 내가 바라는 바 아니지만 청조는 사람이 만날 수 있단네. 단지 원하노니 큰 파도 위에서 만월 같은 모습 친히 뵈었으면.

유자량은 시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싶은 불심을 아주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흠모하는 마음과 위유의 세상에 드러나는 관세음보살의 방편을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시적 긴장감을 준다. 대성과 보문은 관세음보살을 말하는 것이고 명주와 청조 역시 관음보살의 중생구제 방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지막 구절 ‘만월 같은 모습 친히 뵈었으면’이라는 원력은 모든 중생들이 갖는 소망일 것이다.



15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불자아이돌 그룹 순정소년



조계종의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에서 ‘모두 함께’를 불렀다.

농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큰우테크주**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큰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큰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공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9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화려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총략)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